

월/요/광/장

곽수중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할멈은 백설공주를 피어 독이 든 사과를 먹게 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믿으려 한다. 신데렐라 역시 계모의 철저한 미움 속에 생활하다가 예쁜 유리구두를 신고 파티에 나갔다가 왕자님을 만난다. 공쥐잡이의 계모도 마녀다.

전부터 이같은 상황을 예측했다. 환율은 '8자'를 그릴 것이고, 유가는 비록 배럴 당 100달러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70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곡물가격도 미 기상청(NOAA)의 가뭄 전망에 따라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의 '마녀' 찾기

생선, 고음, 임금, 소득, 소비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다. 이같은 톱니바퀴가 곧 경제 시스템이다. 어느 하나가 삐걱거리면 빨간 불이 들어와 작동을 멈추게 된다. 문제를 일으킨 부분을 수리(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다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첫 번째 마녀인 고유가, 고원자재 가격, 높은 곡물가격은 일반 소비자들의 양등을 초래한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로 시중자금이 많이 풀려 있으면 세금이나 금리를 올려 통화긴축을 유도한다.

하지만 물가를 잡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도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로 보고 있다. 필자 생각엔 적어도 3.5%가 되지 않을까 싶다.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물가는 1.7%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가가 배럴 당 평균 25달러 정도였으니, 소비자물가는 4% 이상 올랐어야 옳다. 그런데도 왜 2%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경제는 '시장에서의 순환'을 의미한다.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

국 상업 및 투자은행의 잇따른 유동성 검색으로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달러화 공급의 증가, 즉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유발했다.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뚝 오른다. 외환보유 자산이 각각 4.5조와 3.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OPEC 등 석유 생산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외화자산 포트폴리오 중 미 달러화보다 유로달러를 선호하면, 미 달러화는 더 떨어질 것이다. 달러화 가치 하락은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기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미국의 계속되는 요구에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녀는 과연 누구일까. 미국이 '잘 나가는' 중국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이려는 마녀일까? 아니면 끝까지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고 버티면서, 지금까지 빨아 들였던 인플레이션을 모두 밖으로 내뿜어 버리는 중국일까?

진주만 공습을 다룬 영화 '도라 도라 도라'에서 야마모토가 "잡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떠오른다. 중국은 세계를 경연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 중소기업 인력난 전국 최고라니

취업난 속에서도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중소기업 인력난이 전국 최고라고 한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은 4.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5%가 100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체 취업률도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은 4.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5%가 100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체 취업률도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은 4.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전국 최고라는 것은 문제다. 그만큼 지역경제 여건과 중소기업 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사업체 종사자 수의 88.1%, 수출의 3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일자리 없는 성장시대'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없이 국가 및 지역 경제 활

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회사 경쟁력 약화-인력 이탈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는 다시 지역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 인력부족은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급여 및 복지가 대기업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은 기업 자체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외국인 연수 취업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공급제도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자체, 학계, 경제계 등이 하나 되어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만드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 종합대책 유류세 인하 포함해야

정부가 이번 주에 고유가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정치권과 여론이 촉구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정부 대책에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효과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승 경제부총리도 최근 국경감사에서 "유가 상승을 세금 인화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가격 탄력성' 논리를 펴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가격이 낮아지면서 휘발유 소비가 급증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휘발유가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세금은 내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소비만 줄이라는 논리는 공허하다.

고유가는 서민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휘발유와 석유 관련제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경중 뛰고 있고 밀가루 등 생활 전반의 물가도 심상치 않다. 세계경제는 저물기 시대가 끝나고,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달러 가치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유가 급등은 각종 물가 인상을 부추겨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3%선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 물가상승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다.

휘발유 값은 60% 이상이 세금이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유류 세금이 25조9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석유제품의 각종 부담금 감감 및 유류구조 개선 등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5년 전인 지난 2002년 12월 3일, 세계적 휴양도시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도 시국가 모나코의 지중해 연안 그리말디 클럽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렸다. 여수는 결선투표까지 가며 선전했으나 중국 상하이에 분패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이벤트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유치는 국력에 비례

(吳儀)를, 러시아는 개혁·개방의 상징인 고르바초프를 내세웠다.

우이는 남편의 도움없이 중국 역사상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이다. 90년대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담판지은 협상전문가이자, 단아한 외모와 뛰어난 화술로 국제사회에서 인기가 높았다. 냉전을 종식시킨 고르바초프 역시 서구인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정몽구 회장



한국대표단에도 스타는 있었다. 공식 대표단은 전윤철 경제부총리였지만 현지 언론의 관심은 온통 정몽구 박람회유치위원장에 집중됐다. 글로벌 기업, 현대차 CEO의 움직임에 쫓긴 관심은 우이나 고르바초프 이상이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한국과 러시아가 한판 승부를 벌였던 지난 7월 파테탈라 IOC 총회가 좋은 사례다.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능숙한 영어와 불어를 구사하며 총회장의 분위기를 사로잡았다. 러시아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푸틴의 카리스마와 영행력, 로비가 만든 환상적 합작품이었다.

2002년 모나코 BIE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푸틴은 '철의 여인'(鐵娘子)으로 불리우는 국제외교계의 걸출 무이

정 회장은 현재 2012년 여수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의 부위기를 사로잡았다. 러시아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푸틴의 카리스마와 영행력, 로비가 만든 환상적 합작품이었다. 2002년 모나코 BIE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푸틴은 '철의 여인'(鐵娘子)으로 불리우는 국제외교계의 걸출 무이

정 회장은 현재 2012년 여수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의 부위기를 사로잡았다. 러시아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푸틴의 카리스마와 영행력, 로비가 만든 환상적 합작품이었다. 2002년 모나코 BIE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푸틴은 '철의 여인'(鐵娘子)으로 불리우는 국제외교계의 걸출 무이

/오승중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법조 칼럼

김승휘



2개월 여전 우리 법원에 판사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다. 그 때부터 출근할 때면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신분증 없이 사무실로 가려면 내키지 않는 센서에 감지손가락을 밀어 넣고서 한참을 기다리는 일을 2~3회 반복해야 한다. 신분증을 사용하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정정한 자세로 센서에 손가락을 밀어 넣고 기다리지는 않아도 되니 신분증이 지갑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나는 사정이 좋은 편이다.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지문에 한해

의 신뢰의 부족 때문에 설치된 것이다. 그동안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거나 가장시키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의정부 사태, 대전 사태로 불렀던 사건의 발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의 탄생, 법원에 대한 석공 테러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그 때마다 우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한다느니, 법관실 출입을 제한한다느니, 국민의 재판 참여를 강화한다느니 하는 등의 처방을 내 놓았다.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함을 법원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선거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등장했다. 수 많은 진단과 개선책 중 일부는 제도화되었고, 일부는 그

판사실 스크린 도어에 대한 단상

가 있어 실무관들은 숫제 신분증이 없으면 판사실을 출입할 수도 없다.

스크린도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법원 직원들만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예전에는 법정을 옮길 때 판사실이 있는 층의 복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자 법정을 옮기려면 반드시 한번은 1층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불평이다. 이런 불편함이 대수롭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스크린 도어 안에서의 생활은 건강에도 해롭다고 한다.

스크린도어는 법관과 재판 관련자의 접촉과 재판 관련자의 법원에 대한 이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 법관과 재판 관련자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는 발상과 법원이 재판 관련자로부터 이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발상은 모두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상황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결국 스크린도어는 법원에 대한 국민

의 신뢰의 부족 때문에 설치된 것이다. 그동안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거나 가장시키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의정부 사태, 대전 사태로 불렀던 사건의 발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의 탄생, 법원에 대한 석공 테러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그 때마다 우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한다느니, 법관실 출입을 제한한다느니, 국민의 재판 참여를 강화한다느니 하는 등의 처방을 내 놓았다.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함을 법원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선거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등장했다. 수 많은 진단과 개선책 중 일부는 제도화되었고, 일부는 그

저 논의에만 그친 채 사장되었다. 어떤 이들은 재판이란 절반은 승자이고, 절반은 패자인 게임이며, 승자는 법관을 신뢰하고, 패자는 법관을 불신하므로,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절대로 50%를 넘지 못하지만, 절대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니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무의미한 일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는 분명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스크린도어의 설치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킬 적절한 방안이 아닌 듯하다. 누가 감히 대법원장에 국민으로부터 의심받을 일을 판사실 안에서 벌인단 말인가? 국민 모두가 법관을 신뢰함으로써 실효성에 의의가 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건강마저 해칠지 모르는 스크린도어가 사라질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진선기



역사를 통해 볼 때, 정치1번지 호남은 위기 때마다 정치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대승적 차원의 정치발전을 꾀해왔다. 그래서 선거가 있거나 국가적인 대역사를 해야 할 때 누구든 광주를 찾고 5·18묘역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며 출사표를 냈다. 그러나 요즘 정치1번지 광주의 정치적 위상은 어떤가. 범여권의 분열상과 호남민심을 대변할 대안정치세력이 없다는 지역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호남지역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다시 한번 호남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민의 화합감을 극복해줄 대통합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민심은 기존 정치세력의 산술적

이 시점에서 양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후보연합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 아니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독선과 분열이 아닌 상생과 화합을 통한 통합의 새 정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양당은 만나 후보연합 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들 자신뿐 아니라 양당 자체도 국민에게서 두 번 외면당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극단을 피한, 한 단계 뛰어넘는 정치다. 함께 오는 통합의 정치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들 대결·갈등 구조에서 편협한 이념 논쟁을 하면서서지 세력을 끌어안지 못했던 오만한 정치행태를 벗어나 호남과 영남을

호남정치의 대통합을 바란다

통합을 넘어 참신하고 통합적인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올해 대선에서나 내년 총선에서 호남의 저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호남인은 보다 진보적이고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주도하기엔 정치세력의 결집이 약하고 불만이 차있는 호남 민심은 전국 민심의 대표적인 시발점이 되어 자칫 정치문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범 민주세력의 진화를 위해서 민주당의 구도를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내의 기록권을 매달려 있는 행위는 모두를 죽이는 행동이다.

정치 발전과 성숙한 정당 정치의 향상을 위해서는 야당 못지않게 건설한 여당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원래 여당이 한 뿌리였던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됐다.

이유는 분명하다. 몸이 아프면 병까지 공부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본인의 질병이 다

안고 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한 비전 정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시점에서 호남정치는 다시 한번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분열된 정치세력을 하나로 결집하고 정권재창출을 시도해야 하며 통일한국을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광주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 대선 후보 연합 후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통해 호남민심을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 서로 마음을 열로 양금을 털어내고 진정으로 이 시대의 정치를 어떻게 끌어가야 하며, 호남발전을 위해 정치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지금쯤 평화개혁세력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이어갈지, 한나라당으로 넘길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그 짐을 지은 호남인의 입장에서 여권의 정치적 분열로 인한 대선 위기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영화 상영 끝난 뒤 감동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영화 엔딩 크레딧은 영화가 끝나후 영화의 내용을 음미하려는 취지에서 음악이 흐르면서 제작과 관련된 많은 스태프들의 이름과 역할 등이 화면에 올라간다. 영화의 감동을 그 엔딩 크레딧과 함께 잔영으로 느끼며 마지막 여유를 아쉬워하는 관객들도 많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불 것은 이미 다봤다"는 생각의 일부 고니객들은 영화가 끝날 즈음에 보이는 순간부터 영영이를 털어버린다.

영화 상영관도 마찬가지다. 빨리 끝내고 다른 관객들을 받으려는지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영관 불을 켜는가 하면 안내 직원을 통해 스크린 앞에서 "퇴장은 이쪽으로 하세요"라거나 "음료수와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려주세요"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감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는 없는걸까.

▲백은희·광주시 북구 각화동을

개근 강조, 지나치게 획일적인 교육방식 바꿔야

호주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몸이 아프면 학교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호주로 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처럼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로부터 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거나, 안간다고 버티서 주변 학생이나 교사로부터 이상한 아이 취급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몸이 아프면 병까지 공부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본인의 질병이 다

른 학생들에게 옮길 위험이 크기에 굳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로 재직하고 계신 한인 교보는 "호주 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피곤해 수업 중, 잠을 자도 일반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어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웬만큼 아프면 참고 등교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개근을 강조하는 나라도 없다고 한다. 지나치게 획일적인 교육 방식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윤영덕·광주시 서구 덕흥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